한국에서 온 그대

태국에서의 마지막 5개월 간의 기록 >>> 그 첫 번째 이야기

RaonAtti

목차

3. 아띠 감성

2. 아띠 활동

1. 아띠 소개

RaonAtti

1. 아띠 소개

한승훈(Ma-Yom)
태국에서 마음^_^ 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식주의자인 저에게 meat less는...너무 힘들어요!!

김재연(Ma-Prang)
태국에서 마쁘랑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 슈퍼모델 pen cake 의 쌍둥이라는 소문을 달고산다는..촤하하

소다슬 (Mang-Kud)
태국에서 퀸의 과일, 망굳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각 보다 발음하기 어렵다는 점!^o^
장트러블에서 탈출! 하나 했는데..

권도완(Ma-Muang)
태국에서 망고! 의 뜻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망고처럼 sweet(?)한 남자라는 뜻이겠죠? 하하!

RaonAtti

2. 아띠 활동

3월, 계획하다

태국, 들여다보다

한달, 이야기하다

RaonAtti

3월, 계획하다

MARCH 2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Arrive CM by TG 116,……	7 Orientation visit YMCA Chiang mai Visit YC Welcome Party	8 Observe the class at the YMCA
9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10 Visit The environmental and energy center	11 Day off	12 Thai Class Thai culture Speaking class	13 Thai Class speaking class learning how to make coffee	14 Thai Class Speaking learning how to make coffee	15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16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17 Thai Class speaking class	18 Day off	19 Thai Class speaking class & take care elderly people	20 Thai Class speaking class & Mechanic for bicycle	21 Thai Class Speaking	22 Technical for how about to Teaching With Aj.Aree
23 Teaching Technical by Aj.Aree	24 Thai Class Speaking class	25 Volunteer for Teaching how to make snack FromVegetable at Meahongson	26 Volunteer for Teaching how to make snack FromVegetable at Meahongson	27 Day off	28 Prepare for how toPainting & Decorate Happy kids room	29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30 Activity with the YMCA member Love coffee	31 Painting for Happy kids at Sao-Hin YMCA					

태국, 들여다보다

Wat Phrathat Doi Suthep

태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종교, 불교! 많은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인 만큼 크고 웅장한 모습과 넓은 치앙마이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불교가 낯선 우리팀은 이곳이 신기하고 또 신기 할뿐이었다.

RaonAtti

Hot Springs

이곳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즉석 삶은 계란도 맛보고,
따뜻한 온천물에 발도 담
그며 쉼을 즐겼던 곳!

Bo Sang

SankhamPaeng의 특산품인 수공예 우산!
하나 하나 우산을 직접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
었고 손수 그림도 쓱쓱 그리는 모습을 보며 수공
예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티스트로서 Bo Sang에서만 남아 있기에는
너무나 아쉬울 정도의 실력!

RaonAtti

Walking Street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SanKhamPaeng의 야시장!!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가득했던 도로가 오직 사람들의 발걸음만 존재하게 된다.
태국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길거리.

RaonAtti

한달, 이야기하다

WELCOMING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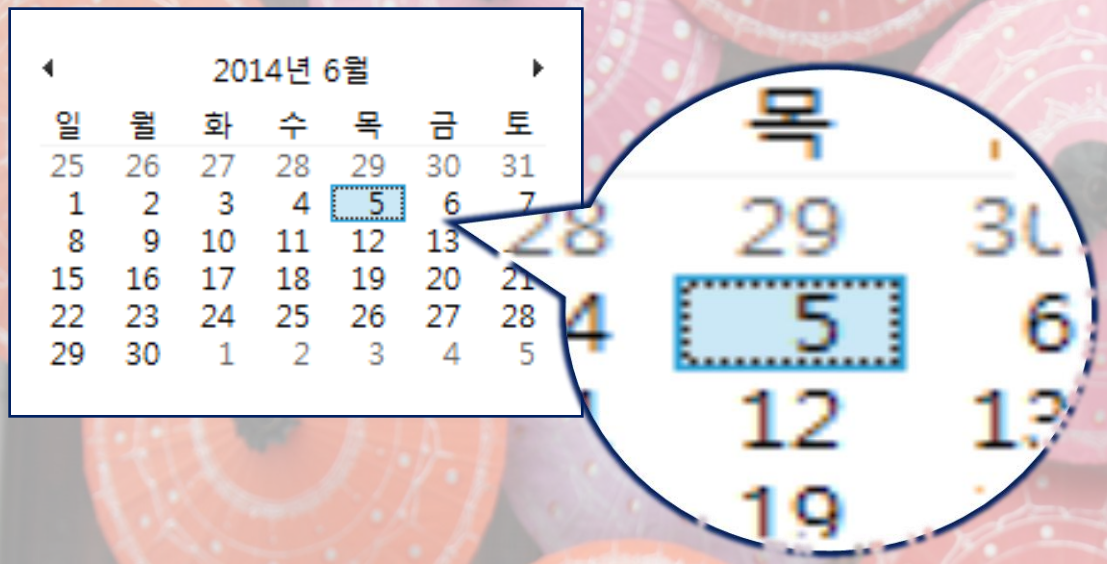
태국에 처음으로 온 우리를 반겨줬던 JKY 학생들과 산캄팽 YMCA 가족들!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K-POP 댄스와 태국의 전통무용을 보여주셨다. 그 보답으로 우리 라온아띠 멤버들이 당차게 준비해 온 한국의 전통음악 사물놀이를 보고 함께 즐거워 해준 모두들에게 감사하다.

RaonAtti

Saohin Y.M.C.A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에너지 교육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좋은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버려진 쓰레기도 재활용이 된다는 "I am Money!"

태국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민해 본 태국의 문제점!??
구름 한 점 보기 힘든 태국의 하늘, 끝없이 타 들어가는 나무들, 이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스모그 현상으로 라온아띠 멤버들은 눈에서 따가움을 느끼고 잦은 기침이 유발됨을 느꼈다. 이 같은 환경의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나갈 방안은 없을까? >>> Next page



How?

'6월 5일' 은 환경의 날!

6월 5일에 진행될 350ppm 캠페인
'환경! 지키고, 지키고, 지키자!' 라고 외치는 것 그 밖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고의 전환으로, 현재 많은 양의 CO2를 없애는 방법!
한국의 식목일과 같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캠페인을 진행해보기로 의견이 나왔다.
6월에 우리와 함께할 치앙라이 학생들의 가정에 나무를 '함께' 심고
'함께' 가꾸어 나가며 자연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RaonAtti

SaoHin Y.M.C.A. 에너지 교육 보조 교사

처음으로 태국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첫 날에 우리와 같이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들으러 온 아이들을 위해 일일 보조교사로 참여하였다.
라온아띠 10기 태국팀이 홈스테이를 진행했던 학교의 학생들이라 좀 더 애착이 갔던 학생들!
긴 시간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처음으로 태국의 아이들과 함께 물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RaonAtti

태국 전통과자 만들기

SaoHin Y.M.C.A 식구들과 함께한 태국 전통과자 만들기! MaehongSon에 가기 전 MaehongSon의 학생들에게 과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연습의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 재활이 가능하다고 하니 마음이 이보다 뿌듯할 수 없다. 하지만 태국의 과자는 기름기가 너무 많다….

RaonAtti

MaehongSon 방문

Saohin Y에서 배운 전통과자 만들기와 해독주스, 생과일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보조교사로 참여하였다. 마을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 뵙기도 하고 이 날 있었던 학생들의 졸업식도 함께 하며 1박 2일 동안 그들과 정을 나누고 온 시간이었다.

RaonAtti

SaoHin Y.M.C.A. 벽화 그리기

Language School의 칙칙한 교실 분위기를 한 층 더 산뜻한 분위기로 바꿔달라는 Y의 부탁을 받고, 긴급하게 회의에 들어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 뿌듯하고, 학생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 날의 노고가 싹 사라졌던 벽화 그리기!!

RaonAtti

♥ Love Coffee ♥

Love Coffee 운영을 통한 네 가지 사랑 나눔 방법

Step 1. For the Farmer, Organic Farm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

Step 2. For the poor people, 수익의 10%는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환원!

Step 3. For the local people,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친구를 맺는 따뜻한 공간!

Step 4. For the earth, 화학 비료나 기타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

RaonAtti

Organic Coffee란?

화학 약품을 절대! NEVER! 사용하지 않고 재배된 원두 커피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Coffee를 말한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커피의 진한 맛이 더욱 풍부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커피의 신 피파이에게 태국사람들은 어떤 맛의 커피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배우며 커피만들기를 배웠다. 각자 아띠들은 Y Staff들에게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다고…

RaonAtti

Language School

산캄펭 YMCA의 주요 활동인 랭귀지 스쿨은 주말마다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배우러 온다. 태국 봉사자 선생님들을 대신해 아띠들은 30분씩 영어 수업과 한국어 수업을 준비해 진행하였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 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뜻 깊었던 활동.

RaonAtti

우리 라온아띠가 앞으로 가지게 될 치앙라이 학교의
학생들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Lecture With Ajan(교수님) Aree

한 사람씩 각자의 수업을 설계해보고,
수업 스킬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의
부족한 모의 수업을 들어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aonAtti

Love & Care Project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집에 방문하여 말동무가
되거나 혹은 가사일을 도우며 아시아의 친구가
되어가는 첫 걸음을 내딛은 활동이다. >>>
하지만, 한 가정에서는 생활용품을 준 뒤 사진
만 찍고 활동을 마감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활동은 아닐지… 의문을 가졌고,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며 무엇이 중요한가? 고민이 되었다.

RaonAtti

Meatless Monday

온실가스 발생을 일으키는데 한 몫 하고 있는 고기음식 줄이기 프로젝트, Meatless!! 국내 훈련 기간 동안 거의 지키지 못했던 Meatless Monday.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태국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고기 없는 식사를 먹는다. 고기가 없는 식단에 적응하기 힘들지만, 350ppM 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뿌듯하다. 다만, 육식주의자 Ma-Yom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RaonAtti

3. 아띠 감성

권도완(Ma-Muang)

태국에서의 첫 한 달 적응기(?)는 물흐르듯 순조롭고, 때론 다이나믹했던 한 달여의 시간이었다. 한달 동안 나는 나를 더 가꾸고, 지나간 내 삶을 되돌아보며 '개인의 성찰'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새겨보았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봉사란 큰 프로젝트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태국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고, 항상 나를 아껴주던 사람들이 멀리가 아닌 바로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 한국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크게 느껴졌다.

항상 봉사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무엇이라는 생각에 부담을 가졌던 나이지만, 내 주위에서 시작될 작은 변화들에 남은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된다.

RaonAtti

한승훈 (Ma-Yom)

태국에서 생활한지 어느덧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느리다면 느렸고 빠르다면 빨랐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태국생활 이었지만 차츰 잘 적응해 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츰 태국 현지인들과 Y 가족들에게 태국어로 인사할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현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었고 관계 맺음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도 찾을 수 있었다.

요즘 태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보다 많은 여유로움이 생겼다. 뭐든 빠르게 살아가던 한국과 다르게 이곳에서 생활은 내게 여유 라는 단어를 알 수 있도록 해 줬다. 또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한달 이였다. 태국에서 1개월간 생활하며 나는 태국에 더 녹아 들었고 항상 나를 보며 웃어주는 현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다. 이곳에서 나는 '봉사' 라는 단어보다 '배움' 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이런 '배움' 의 자세로 남은 4개월을 잘 헤쳐나가고 싶다!!!

RaonAtti

소다슬 (Mang-Kud)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했던 3월이 지나고 벌써 4월을 마주보고 있다니 기분이 묘했다. 어제 온 것만 같은데 벌써 3월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게 참..모든 걱정과 생각들을 버리고 온 태국에서 나는 더 많은 걱정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 생활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는데 그 것은 힘든 일이 있어도 크게 웃기와 매일 밤 일기로 내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국내 훈련도중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긍정' 이라는 단어를 내보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긍정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가짐이 나에게 크게 작용 한 것이 요즘 태국에서의 나는 한국에서의 나보다 좀 더 밝고 잘 웃으며 사소한 것에 행복하고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고 있다. 이 곳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밝게 웃을 줄 아는 내가 좋고 이 곳 사람들과 마주보며 보내는 시간이 행복한 이 곳에서의 한달이었다. 우리 태국팀이 얼마나 뜨거운 날들에 대해 배울 지 기대되는 3월의 마지막 날이다.

RaonAtti

김재연(Ma-Prang)

태국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3월 한 달간, 내 스스로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회의나 나눔 때 팀원들에게 매번 무언가를 빨리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하루 빨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고, 우리 팀만의 큰 활동들을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어떻게 보면 열정이 넘쳤던 것이지만, 조급함에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 같다. 하지만 3월이 마무리 된 지금, 나는 더 이상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지 않고 태국에서의 생활 자체를 즐기고 있다. 한국에서 늘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지내온 내가 이곳에서 여유로움을 배우고 있다. 이곳에 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아시아의 친구'가 되려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이곳의 사람들과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행복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것도 행복으로 느껴진다. 적응 기간이라 불리는 3월 동안 난 태국생활에 점점 스며드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완.벽.적.응!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많은 일들 하나하나가 기대되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다.

김재연 쑤쑤~! 사랑하는 우리 태국팀도 쑤쑤~!

RaonAtti